



주 제:	“회개”	“대림 제 2 주일”	2007년 12월 9일
복음 묵상:	마태 3,1-12	이사 11,1-10	로마 15,4-9

요한의 이 가르침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. 오늘날에도 이 가르침은 진리입니다. 주님을 맞이하고자 한다면, 그래서 새사람이 되고자 한다면,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뒤집어 말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맞이할 수도 새사람이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.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 제 2 주일에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.

뿐만 아니라 한국천주교회에서는 성탄을 앞두고 판공성사를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고해성사는 죄를 사해주는 성사이지만 또한 주님을 맞이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는 훈련이기도 합니다.

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.

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회개하라는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 다짐합니다. 그리고 신자들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교회가 마련해 놓은 판공성사를 참된 은총의 기회로 알고, 잘 준비된 마음으로 판공성사에 임하도록 합니다.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이 주님을 만나 새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 (부산 김 두완 신부님 강론 중에서)

1. 성가대 소식

- **축입단:** 권미숙 안나 자매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가대에 다시 복귀하셨습니다.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.
- 성탄절이 **3 주앞으로** 다가왔습니다. 매주 미사후 성탄 미사곡 연습을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즐거운 성탄 전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.
- **조 율리안나** 자매님 약 2개월 반의 예정으로 한국 방문중에 있습니다. 여행중에 건강히 유쾌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.

2. 공지 사항 및 기도 요청

- (A) 12월 2일 하려던 성심 성가대의 총회를 불의의 개인적인 일로 다음으로 연기 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. 일자와 장소는 연말 파티와 함께 총회를 할 예정이오며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.
- (B) 지난 12월 1일 선종하신 어머니 김기원 마리아를 위하여 장례절차뿐 아니라 많은 기도로써 도와주신 덕택에 모든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. 주님의 사랑을 보여 주신 모든 성가대 가족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베플어 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김 지만 토마스,
김 화선 모니카 배상



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. ○ “회개하여라.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.” ○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.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. “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. ‘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.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.’” ○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다.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. ○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, ○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. ○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, 그들에게 말하였다. “독사의 자식들아,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? ○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. ○ 그리고 ‘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.’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.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, 하느님께서 이 들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. ○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.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. ○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.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.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.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. ○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,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.”

1분 명상

“죽을 때 후회하는 세 가지” (‘좋은 글’ 중에서)

첫째,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

가난하게 산 사람이든 부유하게 산 사람이든 ‘좀 더 주면서 살 수 있었는데, 움켜 쥐어봐도 별 것 아니었는데 왜 좀 더 베풀며 살지 못했을까?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’ 이런 생각이 자꾸 나서 이것이 가장 큰 후회랍니다.

둘째,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

‘그 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걸,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, 쓸데없이 행동했는가?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참았더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’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친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.

셋째,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

‘그렇게 뻑뻑하고 재미없게 살았는가? 왜 그렇게 짜증스럽고 힘겹고 어리석게 살았는가?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하며, 복되게 살지 못한 것’ 에 대해서 후회하며 또한 이러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.

